

2019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에 이소자키 아라타

<https://www.pritzkerprize.com/>

일본의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 건축이론가로 알려진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가 2019년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이소자키를 “작품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와 관계를 구축해 온, 진정한 국제적인 건축가”이자 “건축사와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아방가르드를 포용하며, 단순히 현상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건축의 의미를 탐색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온 선구자”라고 평가하였다.

건축의 공백을 변화로 채우다

이소자키는 1931년 일본 오이타현에서 태어났다. 14살 때 오이타를 주변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격이 있었고 폐허가 된 고향, ‘건축의 공백’에 대한 경험에서 사람들의 건축과 도시를 재건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소자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경제·문화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토의 물리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환경과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건축, 하나의 스타일로 정의되지 않는 건축은 곧 이소자키의 작품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다.

지역성과 보편성, 낯설과 조화의 건축

초기 대표작으로 고향에서 이루어진 오이타의료관(1960)·오이타현립도서관(1966)이 있으며, 이후 군마현립근대미술관(1974)·기타큐슈시립미술관(1974)·쓰쿠바센터빌딩(1983) 등을 설계하며 국내 작업 무대를 넓혀나갔다. 로스앤젤레스현대미술관(1986)은 이소자키가 국외에서 한 첫 작업으로, 붉은 색 인도사암을 건축재로 활용하고 황금비와 동양의 음양 이론 등을 적용해 동서양의 조화를 건축에 녹여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소자키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일본 기후현의 미노공원(2002)이 있다. 자연 지형 안에 야외 테라스, 전망대가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나는 돌로 만든 벽돌, 도자기가 건축재료로 활용되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경기장으로 쓰인 팔라우 산 조르디(Palau Sant Jordi, 1990) 또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1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부분을 지하화해 운곽을 최소화, 주변의 몬주익언덕이 더욱 돋보이도록 설계하였다. 돔 지붕은 카탈루냐식 볼트 양식으로 짓되, 경사면 형태는 불교 사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카타르컨벤션센터(2011), 아크노바(2013), 밀라노의 알리안츠타워(2014), 상하이심포니홀(2014) 등 이소자키는 세계를 무대로 여전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소자키는 60년간 국내외에서 100개가 넘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건축의 미래를 그리는 건축가

심사위원단은 이소자키가 작품 면에서 훌륭할 뿐 아니라, 신인 건축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원하고 세계 건축가 간 교류에 기여한 점 또한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후쿠오카 넥서스 월드 하우스 프로젝트, 도야마현의 마치노카오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젊은 건축가들이 참여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 Yasuhiro Ishimoto

오이타현립도서관



© FUJITSUKA Misunasa

기타큐슈시립미술관



© Yasuhiro Ishimoto

로스앤젤레스현대미술관



© Wan Baan

아크노바



© Hisao Suzuki

팔라우 산 조르디



© Hisao Suzuki

팔라우 산 조르디

자료: 2019 프리츠커 건축상 홈페이지(<https://www.pritzkerprize.com/laureates/arata-isozaki>)